

< II -1 >

광역정부간 협력구축 방안연구

(경기도-서울시 음식물폐기시설 민원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 광 구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고, 행정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변화하면서 정부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비선호시설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는 더 이상 경쟁자나 이해관계를 넘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 민간시설에 대한 위탁 의존도가 70%가 넘고, 해당 지역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비율보다 타 지역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행정구역내의 갈등이 아닌 정부간 갈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약 50%를 경기도내의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를 처리할 법적·제도적 미비를 근거로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경기도와 갈등상황으로 비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의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을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적인 측면, 실행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음식물폐기처리시설의 경우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간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처리량이 월등히 많아 이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지역적 범위를 경기도와 서울시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과 현황을 바탕으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헌 조사를 통해 관련 이론, 사례, 제도, 현황 등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발생의 원인 및 유형, 현황 등의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민원발생의 주된 원인인 악취와 관련된 기술을 파악하여 악취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협력구축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한다.

III. 연구결과

정부간 관계의 협력 구축에 있어 당사자들간의 상호관계나 마음가짐, 태도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적, 법·제도적인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협력 이외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력요인의 유형화에 따라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적 요인에 의한 협력구축 방안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관련 개별법 보완, 협의를 의무화 하는 개별법 법률의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행위자 요인에 의한 협력구축 방안으로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다자간협의체 구성,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상테이블 구축, 서울시에 압박카드 및 압박목적 제시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환경적 요인에 의한 협력구축 방안으로는 조정자 및 중재자의 활용, 갈등의 공식화 및 공론화의 실익판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책무홍보, 협상 배트나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및 행정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I-1 >

A Study on building a collaborative metropolitan governmental

relationship(Focusing on the conflict on Gyeonggi-Seoul food waste treatment facilities)

< *Kyunghee Univ., Kwang-Gu Kim* >

I. Objectives and Importance

Because of Seoul's food waste treatment in Gyeonggi Province, the residents of Gyeonggi have been constantly appealing against it. Nonetheles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come under conflict with Gyeonggi because of not showing Seoul's willingness to deal with the problem. Seoul has argued they have no legal responsibilities and institutional grounds for responding to the problem. This is why this study would try to draw up a scheme of collaboration between Seoul and Gyeonggi in order to settle down the matter.

II. Research scope

This study will demonstrate how to deduce problems and solve them after the analyses of a theoretical part for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the present condition for productions and treatments of food wastes in Seoul and in Gyeonggi, and of the status of food wastes treatment facilities. The geographical scope for the study only includes Seoul and Gyeonggi. Gyeonggi, treating Seoul's food wastes, has much more quantity for the treatment than the other regions and this makes the residents petition increasing.

III. Results

Although related parties' relationship and attitude are important to build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dministrative, legal, institutional systems may also be necessary to develop collaborative relationship. There may also be necessary other measures to bring up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if it may be failing.

First, as an institutional measure, this study may suggest to revising related legal acts or introducing new law that require direct negotiation among involved parties to solve collaboratively the food waste treatment problem.

Second, in terms of involved actors, this study may suggest to establishing a multi-party conference between Gyeonggi and Seoul as a negotiation table and to employing for Gyeonggi to build coalition building to press Seoul.

Third, in terms of external measures, this study may suggest to employing the third party or professional facilitator(s) or mediator(s), to making public the legal accountability and ethical responsibility of Seoul who discharges food wastes, and to ensure the BATNA of Gyeonggi.

IV. Application Pla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systematic and administrative improvement to work out the matter in respect of food waste with collaboration between Gyeonggi and Seoul.